

●연중 제 23주일 강론

예전 교구 사제단 피정 때에 지도를 해주신 신부님의 체험담이 떠오릅니다.

전라도 광주에 천주의 성요한 의료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지원에 인숙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나이는 스물이 넘은 아가씨지만 정신 연령은 네다섯 살 정도의 어린 아이 수준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사님들께서 장애인 방에 간식을 넣어주고 인숙이 방을 나오는데, 갑자기 인숙이가 죽겠다며 소리를 치더랍니다. 황급히 인숙이 방으로 수사님들께서 달려가 보았더니, 방금 나누어준 인숙이 간식을 다른 장애인들이 먹으려 하자 인숙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식을 한 입에 털어 넣다가 그만 목에 걸려 숨을 못 쉬고 객객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님들께서 급히 간식을 토하게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너무도 이상한 것이 숨을 못쉬는 상황에서도 인숙이는 한 손은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허리춤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잠시 숨을 쉬게 하고는 팔을 강제로 벌려 옷을 찢혀 허리춤을 보았더니 며칠 전 복지원 식당에서 닭 요리를 하고 버린 닭 내장을 인숙이가 나중에 먹으려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몰래 건져 허리에 매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연령이 낮은 인숙이 눈에는 닭 창자가 울긋불긋 한 것이 먹음직스러웠나 봅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피정 지도 신부님께서는 인숙이야 정신 연령이 낮은 장애를 가졌으니 이해 되지만 정상인이며 어른인 우리들이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허리에 매달고 있는 썩은 닭 창자가 무엇인지 먼저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썩은 닭 창자를 잘라 버리면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악취를 풍기지 않고 너 나 할 것 없이 깨끗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되질 않아 악취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라 버리지 않는 썩은 닭 창자는 ‘교만’

‘이기심’ ‘자존심’ ‘썩은 냄새나는 고집’ 등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 33)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은 물론 이거니와 자신들이 진정 버리기 어려운 고집과 아집, 이기심과 자존심, 교만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려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제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뼈 속을 비워야 합니다. 그 위에 다시 비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천상 하느님 아버지 집으로의 비상은 자신을 수없이 버리고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똥똥한 상태로는 날아서 하늘나라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성 바오로의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필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얼마 동안 옥중에 있는 바오로 사도의 시중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오네시모스를 원주인인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며 그를 용서해 주고 잘 받아줄 것을 부탁하며 편지를 씁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그저 물건에 해당될 만큼 재산의 일부인 별것 아닌 존재로 비참한 대접을 받았는데, 바오로 사도는 그를 아들로, 심장과 같은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레몬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필레 9, 16)

이것은 바오로 사도가 그만큼 자신에게 있는 자존

심과 명예까지도 버리며 스스로를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스승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 27)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지다’는 ‘십자가를 소중한 보물로 알고 품에 안고 따라야 한다’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십자가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보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만나게 되는 십자가는 이겨내고 받아들이며 안고 나아갈 때 분명 공로가 되는 것이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히 갈라지는 심판대에서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배광하 신부 <춘천교구 계재마니 피정의 집 원장>

좋은 것일수록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나쁜 일에 빠져드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좋은 것일수록 그것을 얻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 시간과 인내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魂)을 담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촘촘처럼 아껴 쓰라는 뜻도 됩니다.

좋은 것도 너무 쉽게 얻으면 가벼이 여기기 쉽습니다.

쉽게 얻을수록 쉽게 잃고 쉽게 무너집니다.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9월 순교 성월 기도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듬고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을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불멸하여 보존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경에까지 널리 퍼지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겪으며, 당신들은 이땅에서 바치주시어 교회를 살신한다 하느님께 바쳐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성사오니 이 땅에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내담자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감수성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찬미양으로 하느님을 알아 찬미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창조주이시니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확대 사목회의

이달 말 본당 신부님 한국 방문 관계로 정기 사목회의 일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 장소: 박용대 형제 자택(T.519-620-7215)
11 Light Dr. Cambridge
- ▶ 일시: 오늘 미사후 즉시 이동
- ▶ 대상: 사목위원 전체 (구역장 포함)

◎ 꾸르실료 251차 여성 주말 참가자(6명)

먼동이 트면 새날이 오듯 새로운 신앙체험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박 4일의 특별한 여정에 들어갈 새 꾸르실리스따들 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 시: 07년 9월 20(오후6시)~23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고기숙(아네스), 김정현(아네스),
노숙희(베로니카), 박명옥(도미니카),
윤명희(엘리사벳), 장혜라(크리스티나)

◎성모회 야유회 (접수중)

일시 : 9월 29일(토)
장소 : 환상의 조지안 베이 관광
모집인원 : 46명(선착순)
참가비 : \$50 (식사및 행사일체)
문의 :이정숙 자매(성모 총무)

◎9월 구역모임

▶4구역: 9/18(화) 오후 7시, 장명길형제집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다.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레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오늘은 성소후원회 회비 납부하는 날입니다.

◎ 주간 전례

- ▶9월11일(화) 오후 8시, 연중 제 23주간 화요일
- ▶9월13일(목) 낮 12시, 성요한금구주교학자기념

◎예물 준비 후 일어서는 시기는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후 일어서면서 ‘사제의 손으로..’

◎온타리오 신앙대회

일시 : 9월 13일(목)-15일(토)
장소 : 13일, 14일 (예수성심성당에서 특강)
15일 미들랜드 성지 파견미사 및 김대건신부 부조상 제막식
강사 : 배영진(야교보)신부 ·인도출신
시간: 13-14: 7시 미사, 10시 강의마침
15일 :11시 30분 목주기도
12시 미사
1시30분 부조상 제막식
참가신청 : 선교부장님
참 가 비 : \$ 30 준비물 : 목주
출발시간 : 오전 7시 45분

미 사 전 레

해 설 | 박명옥 차주 해설 이정숙

화 답 송 | 주님 주님께서는 대대로
저희에게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얼굴이 주님 종위에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85) 103위 순교성인
봉 헌 (216) 십자가에 제현되신
성 체 (175) 이보다 더 큰 은혜
되 장 (445) 예수님 따르기로

독 서

9월 9일 김현태 김진선
9월 16일 김용하 김희선
9월 23일 고덕근 고세형
9월 30일 이우원 이희진

봉 헌

9월 9일 석광원 석호영
9월 16일 김현태 김진선
9월 23일 김용하 김희선
9월 30일 고덕근 고세형

2007-36

2007. 9. 9.

연중 제 23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2007년 9월 2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704.50
성전건립: \$ 20.00
Total: \$ 724.50